

나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인가?(1)

- 읽을 말씀 마 5:10-12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무와 그들이 받을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마 24:9)”고 예언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세를 사는 우리는 핍박과 무관하지 않으며 박해에 대해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때문에 여덟 번째 복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1) 비겁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명백한 진리입니다.

먼저, 팔복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10).”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역으로 박해를 피하기 위해 비굴하게 굴복하는 자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눅 14:25-27). 왜냐하면 때로는 핍박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참 제자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박해가 무서워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히 10:39).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상을 얻게 하느니라.(히 10:35)”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상” 은 궁극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 역시 비겁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지

옥에 던져질 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기는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로 “두려워하는 자들” 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역사상 전무후무한 박해인 대환란을 다룬 책이고, “두려워하는 자들” 은 박해가 두려워 주를 부인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요한이 기록한대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둘째 사망인 지옥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 를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모두 “비겁한 사람” 혹은 “비겁한 자”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비겁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는 말은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한편, 토마스 왓슨은 「팔복해설」 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지옥에 비하면 가볍다. 저주의 불에다 순교의 불을 비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죽을 상처에 비교해보면 찢린 가시를 뽑아내는 것에 불과하다...고난은 영광에 비하면 가볍다. 영광의 무게가 핍박을 가볍게 만든다.” 라고 역설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절대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비겁하거나 주를 부인하지 않음은 물론, 비겁하게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면에서든 절대 비겁한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답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 박해를 받는 자들이 다 복된 것은 아니다!

모든 박해가 예수님이 말씀한 박해가 아닙니다(고전 13:3). 오직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만 복이 있습니다. 아더 핑크는 「산상수훈 강해」 에서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반대에 부딪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열심히 살피기를 요구한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냉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자신을 살펴야 할까요? 바로 ‘의’ 입니다! 의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이나 마음의 청결뿐 아니라 1-7째 복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복을 통해 의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7가지 복을 시금석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팔복은 세트로 받는 복으로 전부 받거나 하나도 못 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1-7번째 복과 무관한 사람이 박해를 받으므로 천국에 가고 큰 상을 받

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1-7번째 복을 받은 의로운 자로서 박해를 받고 있나 진지하게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벧전 4:15-16).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1-7번째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 박해를 받되 팔복의 사람으로 박해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 고문하고 죽이지 않는다고 박해가 아닌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박해’ 하면 고문이나 순교 등 육체적인 것을 주로 떠올리지만 그런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박해도 있습니다(마 5:11). 이런 핍박은 보통 거짓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말과 펜에 의한 박해도 당하는 자에게 실제로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윈 형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에서 이런 박해에 대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박해는 중국에서의 신체적 박해와 모양만 다를 뿐 건디기가 결코 더 수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새빨간 거짓말로 음해하며 공격하는 글들을 통해 칼로 찌르는 듯한 마음의 고통과 통증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박해가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아더 핑크가 잘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유용성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를 교단과 목사들이 거짓으로 음해하지만 않았다면, 지금보다 최소한 10배에서 많게는 100배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열방의 수많은 교회들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계 21:8)”**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음해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모든 잘못된 결정을 스스로 바로잡게 되길 바랍니다.

4) 지금도 영적인 6.25 즉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요 15:18-20)”**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세상' 이고, 세상은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즉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 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처럼 세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목사와 신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제자들 즉 기독교인의 표식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요 13:34-35). 그러므로 시기하고 왜곡하고 거짓말까지 지어내어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은 절대 교회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런 일을 너무 자주 합니다.

원 형제가 쓴 「하늘에 속한 사람」의 공동저자인 폴 해터웨이는 이런 비극적인 현상을 '아군에 대한 오발' 에 비유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전장에서는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교회에서는 고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한 직업적인 이단사냥꾼들과 그들의 들러리를 선 교수와 목사와 기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한대로 천국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이 가는 곳이지 박해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나눔과 적용

핍박받는 모든 자가 아닌 오직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에게 1-7번째의 복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참된 팔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받은 고난이나 박해들을 나누어 봅시다.